

일반논문

탈북자의 토포필리아와 사회적 의미*

North Korean Refugee's Topophilia and Social Meaning

오인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장소에 소속되며,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장소에 대한 애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탈북자는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북한)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제3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공간에서의 삶, 더불어 통일 한반도에서 변화될 위상까지, 삶의 장소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고 정체성 또한 민감하게 급변한 사회집단이다. 탈북자에게 북한은 그리움과 증오의 모순적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은 자유의 세계로 갈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자 법과 사회제도망에서 배제된 시스템적 공포 공간이다. 끝으로 한국 사회는 개혁과 적응의 신대륙으로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이주민의 의식 같이 토포포비아에서 토포필리아로 점차 변화되어간다. 언어와 민족이 같은 이주민으로서 탈북자는 통일 이후 맞이하게 될 통일한국 사회공간의 이질감과 갈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통일 한국의 비전은 결국 사람의 통일이 되어야 하고 사람의 통일은 각각의 장소가 갖는 다양한 의미와 그에 따른 경험을 서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어: 탈북자, 장소애, 장소공포감, 유목애, 유목공포감

* 익명의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2014년 지리학대회 ‘한국사회발전과 공간’ 분과에서 조언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cani05@snu.ac.kr)

1. 서론

1) 연구 배경

오늘날 이른바 세계화시대에는 국제이주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고 이주자들은 이주국에서 문화충격과 지속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즉, 지금까지 익숙하고 친근했던 장소를 떠나 언어와 환경이 다른 낯선 장소에서 물리적·정서적·사회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 한다.¹⁾ 한국 사회는 다양한 이주자들이 유입되면서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분단 때문에 나타난 또 다른 이주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2016년 현재 2만 9000여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다.²⁾ 한국 사회는 탈북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난민(실향민), 이주민, 동포, 소수자, 통일의 주역, 동시에 통일에 방해되는 집단 등—아래 탈북자에 대한 폭넓은 학제 간의 연구와 정부 및 민간차원의 활발한 지원을 하고 있다. 탈북자를 남북한 체제를 모두 경험한 통일준비의 역군으로 보는 시각과 반대로 북한정권을 자극해서 대화를 차단하는, 통일을 방해하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상반된 시각은 남남갈등의 연장선에서 파생된 이율배반적인 가치판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북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담론들은 큰 그림 안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 더 이상 굶주림이나 학정 때문에 탈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과 이미 한국 사회의 소수자 집단으로 등장한 탈

1) 김용창(1997)은 장소의 의미와 정체성 형성에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공간(hyperspace)의 문제에 주목하고, 각각의 다양한 하위문화의 주관적 의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부르는 용어로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탈북민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이탈’이라는 수동적 의미에 대한 비판이 있고, ‘새터민’은 한국 사회에 오래 정착한 탈북자를 언제까지 새터민으로 부를 것이냐는 불만 등이 있어왔다. 또한 북한 이주민이라는 표현은 본국에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고 가족과 연락을 자유로이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북자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간의 이질감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통일 준비 역량의 시험대로 간주하는 것이다. 통일이란 곧 북한 사람과 한국 사람이 하나의 사회공간 안에서 존재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공간에 정착한 탈북자의 현존재를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토포필리아와 연계해서 바라보고자 한다.³⁾ 탈북자는 북한에서 제3국, 그리고 한국으로 삶의 장소와 정체성이 급변한 존재이다. 중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회적 신분 때문에 탈북자가 겪게 되는 인권유린—여성의 경우 강제혼이나 인신매매, 폭력피해 등—에 의한 트라우마를 갖기도 한다.⁴⁾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법적·사회적 신분 보장과 함께 경제적·사회복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남한사회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탈북자의 행동은 장소가 주는 자극과 반응의 논리에 모순되어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소에 대한 감정적 연계라 할 수 있는 토포필리아(Topophilia)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법과 사회제도 환경이 주는 자극을 초월한 인간과 장소의 감정적인 연계로서의 토포필리아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연구를 출발했다. 탈북자가 탈북 과정에서 경험하는 국가와 사회가 가하는 제약은, 절대적이지만 장소와 연계된 근본적인 정체성으로서 토포필리아가 탈북자의 행태에 많은 의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았다. 즉, 국적의 변화에 따른 탈북자의 토포필리아는 장소와 어떠한 감정적 연계를 맺고 사회적 제약이 주는 자극에 어떻게 반응해가는지 유추해볼 수 있다. 장소가 갖는 고유한 장소 정체성과 그와 연계된 다양한 토포필리아는 주체의 적응

3) Rubinstein and Parmelee(1992)는 장소 경험과 장소에 대한 감정은 인생 행로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4) 탈북 여성의 젠더화된 장소감각, 중국에서의 성폭력, 매매혼의 문제뿐 아니라 한국 사회 내에서 가족 내 차별에 대한 연구가 있다(김성경, 2013; 이화진, 2011, 2014; Muico, 2005).

혹은 부적응이라는 행동과 연계되기 때문이다.⁵⁾ 탈북자의 경우 고향에 가족을 남겨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 자유롭게 고향에 대한 애착과 방문 의사를 드러내기 어려워 북한에 대한 토포필리아를 억압하거나 변형시키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탈북자의 토포필리아에 대한 연구는 탈북자의 내면을 이해하고 나아가 통일준비차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또 하나의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재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탈북과정과 제3국에서의 경험을 거쳐 적국의 국적을 받게 된 탈북자의 모순적 정체성과 사회적 자리매김 그리고 이에 연계된 토포필리아를 밝히는 것이다. 탈북자의 토포필리아를 밝히는 것은 이들의 태도, 그리고 행동양식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Tuan, 1976; Hay, 1998; Brown, Perkins and Brown, 2003). 둘째, 탈북자가 주체로서 인식하는 각각의 사회공간의 의미와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자의적이든지 타의적이든지 탈북자가 경험하는 삶의 무대로서 장소의 급격한 변화는 장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와 같은 장소 소속감과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한국 사회공간 내 탈북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전존재가 형성한 토포필리아를 투영해봄으로서 탈북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지식이 될 수 있다. 즉, 탈북자의 토포필리아는 한국 사회공간에 재현되고 있는 탈북자의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정착을 돕는 철학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탈북자 자신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장소감은 감정적 영역이지만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투자와 관심, 참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Manzo and Perkins, 2006). 즉, 장소감과 그 장소에 대한 행동이 연계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표 1> 인터뷰 대상자와 탈북 시기 대상자

직접 인터뷰 대상자 (13명)			탈북 시기, 신문 인터뷰 대상자 (14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단체명	이름	
남성	24세	대학생	탈북자 동지회	김○○	
	28세	개인사업(컴퓨터)		강○○	
	31세	무직		천○○	
	35세	이북 5도청 근무		박○○	
	40대	탈북자동지회 근무자		무명	
	40대	탈북자교회 전도사		무명	
	40대	자유북한방송국장		무명	
여성	24세	무용수	북한이탈주민회	박○○	
	32세	두리하나 자원봉사자		이○○	
	36세	무직	자유북한방송	무명	
	40대	무직		김○○	
	40대	주부	기타	탈북 시인	이○○
	40대	탈북자동지회 근무자		로스쿨 재학생	강○○
	40대			영국 맨체스터거주	박○○

본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문헌연구, 심층인터뷰(intensive interview), 신문기사와 탈북자 단체 홈페이지에 수록된 탈북시기 가운데 장소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부분을 중심으로 토포필리아를 분석했다. Tuan(1974)은 토포필리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토포포비아(Topophobia)를 제시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토포필리아 개념은 토포포비아를 의미하는 공포감이나 슬픔, 아픔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Anderson and Erskine(2014)은 토포필리아의 개념을 보완하는 이동에 대한 사랑(love of mobility), 인간과 장소의 관계에서의 변화와 변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트로포필리아(Tropophilia)를 제시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탈북자의 ‘토포필리아’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탈북자에 대한 관점은 탈북자를 하나의 상징적인 ‘사회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집단이나 공동체의 장소에 대한 인식은 공통된 언어, 상징, 경험을 통해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Relph, 1985). 또한 Matz and

Wood(2005)는 사회집단이 서로의 태도에 서로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행동과 신념에 대한 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의 개별적인 사회적·인구학적 특성의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동일한 사회집단으로서 탈북자의 토포필리아를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구체적인 인터뷰 대상자와 탈북 수기 저자는 <표 1>과 같다.⁶⁾

인터뷰를 실시한 단체로는 이북 5도청, 탈북자 동지회, 두리하나 선교회, 자유북한방송, 목동에 소재한 탈북자 교회이며, 탈북자 수기를 발췌한 곳은 탈북자 동지회, 북한이탈주민회, 자유북한방송이다.⁷⁾

2. 문헌연구

1) 토포필리아(Topophilia)와 사회 적응

인본주의 지리학에서의 ‘장소(place)’란 좀 더 객관적 의미를 갖는 ‘공간(space)’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다양한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추상적 그릇이라 할 수 있다.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장소란 “거주하는 자들의 운명”이 표현된 곳으로 묘사되기도 한다(Werlen, 1987).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장소에 소속된다. 동네에서 마냥 뛰어놀던 어린 시절이나 입학하고 졸업했던 학교 혹은 신혼여행을 떠났던 장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했던 곳 등 삶의 의미 있는 사건들은 특정한 장소와 어우러져 삶의 이정표가 되곤 한다. 이렇듯 장소는 ‘존재의 특성을 인식

6) 인터뷰는 2007년 본 연구자의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실시한 인터뷰 19명 가운데 토포필리아와 연계된 13명의 인터뷰를 재사용했음을 밝힌다.

7) 북한에 대한 토포필리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탈북시인이거나 씨와 로스쿨 학생 강릉 씨, 영국에 망명한 박지현 씨의 기사를 추가했다. (《Daily NK》 2014.9.17; 《한겨레》 2014.9.4; 《Telegraph》, 2015.10. 11).

하고 세상을 의식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Cohen, 1982).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장소에 애착을 가지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이러한 장소와 인간의 정서적 교감을 Tuan(1974)은 “토포필리아(장소에: Topophilia)”라는 용어로 설명하고자 했다. 토포필리아는 오감으로 지각하는 것부터 개인의 특성과 선호, 문화, 경험, 환경에 대한 태도를 포괄한다. 즉, 모든 민족에게 환경은 단순한 자원을 넘어 깊은 정과 사랑의 대상이자 기쁨과 확실성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애착과 연계의식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실존적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투안은 토포필리아와 반대 개념으로 장소공포감인 토포포비아(장소공포감: Topophobia)를 제시했다. 토포필리아가 사랑, 애정, 연민 등을 의미한다면 토포포비아는 공포, 거부, 혐오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토포필리아는 긍정적 감정연계뿐 아니라 상실이나 슬픔 등의 정서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토포필리아는 토포포비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⁸⁾ 토포필리아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서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은 장소에 대한 뿌리 깊은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장소에 대한 애착은 심리적 측면과 소속된 사회에 다양하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장소에 대한 애착은 사람들의 열망과 필요라 할 수 있다(Tuan, 1976; Weil, 1988).

이러한 특정한 장소에 대한 토포필리아는 다시 장소에 나타나는 행태와 상호 연계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Billig(2006)은 가자(Gaza)지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신변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신념과 장소애착, 신앙심 때문에 그곳에서의 삶을 지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Tartaglia(2006)는 이외는 반대로 근린지역을 산책하거나 공공장소를 방문할 때 장소에 대한 애착이 커짐을 밝혔다. 또한 거주기간이 길고 자녀의

8) 이은숙(2004)은 장소 애착의 개념구조에서 개인이나 집단과 그들의 지리적 환경 사이에서 발생한 긍정적 감정 결속뿐 아니라 때론 부정적 요소도 포함하는 심리적 요소가 있음을 밝혔다. Hummon(1992)도 장소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서 정체성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 존재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수가 많으며 여성인 경우 장소 애착이 좀 더 크고, 염려와 혼동이 공존할 때 장소 애착은 감소된다고 보았다. Marcus and Barnes(1999)는 자연 환경과 웰빙(wellbeing)의 정적 관계를 바탕으로 ‘치료하는 정원(healing garde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장소’를 치료 과정의 일부분으로 보았으며, Ulrich(1992)도 이와 유사하게 ‘지원적 정원 이론(theory of supportive gardens)’이라는 개념을 통해 친환경적인 물리적 환경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통제 능력과 운동 능력을 향상시킴을 시사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Kopela and Ylen(2007)도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행동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토포필리아는 어떠한 장소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되며 동시에 특정한 장소를 방문하는 행동 그리고 장소가 주는 자극은 다시 토포필리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국 사회공간에 소속된 탈북자가 주변 장소에 대한 애착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적 자연·사회 환경을 조성해가는 것은 탈북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유의미한 과정임을 시사한다.

2) 유목적 존재의 트로포필리아(Trophilia)

시공간의 압축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현시대는 이동성과 가변성, 그리고 혼성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곽노환, 2008). 이영민(2013)은 유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경험하는 장소는 ‘외부인’에게 개방된 다양하고 범세계적인 곳(Massey, 1994)이자 ‘외부인’이 차별적으로 규정되고 격리될 수 있는 ‘배타적인’ 곳(Cresswell, 2004)일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인간의 이동성은 새로운 ‘변화되는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박승규(2013)는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과 ‘변화하는 정체성’의 차이에 대해 논의했다. 즉, 변화하는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이고, 무엇으로 되어가느냐(becoming)’,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으로 되어 가느냐’를 물으며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무엇이라기보다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진행형의 정체성이라고 보았다. 자신의 정체성을 수동적으로 규정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규정하기’도 하고 좀 더 나은 모습을 만들며,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 위해 노력한다. 즉, 변화하는 정체성은 차이와 다름을 강조하면서 매일 유사하지만 새롭게 규정해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주라는 유목적인 존재로서의 장소와의 상호작용과 변화하는 정체성은 다시 이들이 주체적으로 느끼는 유동적인 장소감인 트로포필리아(유목애: Tropophilia)와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⁹⁾ Anderson and Erskine (2014)은 인간이나 장소와 연계된 뿌리의식과 안정적인 관계는 역동성(dynamism)과 변화(change), 불안정성(instability)과 장소의 연계성에 의해 그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간주했다. 또한 토포필리아라는 고전적 개념이 이동에 대한 사랑, 인간과 장소의 관계에서의 변화와 변형이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트로포필리아라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주에 의해 부여되는 새로운 —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 정체성과 이들이 형성하는 더 능동적 차원에서 형성해나가는 움직이는 토포필리아로서의 트로포필리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주자가 장소에 의해 받는 영향과 다시 장소에 주는 영향이 연계되어 이주자의 내면을 형성해간다고 할 수 있다. 유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부여하는 장소의 의미와 새롭게 만들어가는 ‘변화하는 정체성’ 그리고 이동하는 존재가 장소에 대해 느끼는 트로포필리아는 서로 깊이 연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공민에서 중국으로 대표되는 제3국에서의 불법체류자 신분 그리고 한국 사회에 편입된 이후 새롭게 부여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이에 따른 트로포필리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남북 분단이라는 체제에서 적국에 등장한 모순적 존재로 사회공간이 제시하는 자극에 대해 수동적 반응만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지만 동시에 장소에 대한 애착의 증가와 장소와 친해지기 등을 통해 변화하는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즉, 트로포필리아가 갖는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수용이라

9) 본 연구에서는 트로포필리아를 유목애(遊牧愛)로 번역해 사용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이동과 생계를 위한 활동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애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는 ‘모험’의 개념이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극단적 상황과 제3국에서 국적을 잃은 불법체류자로서 탈북자의 삶에 그대로 이식될 수는 없지만 최근 영국이나 미국 등 서방세계로의 이주까지 이어지는 탈북자의 극단적인 장소 이동과 정체성의 변화는 오히려 탈북자의 사회 적응에 트로포필리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경험하는 중국에서의 트로포필리아는 트로포필리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트로포포비아(Tropophobia: 유목공포감)로 설명하고자 한다.¹⁰⁾

3) 국내 탈북자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흔히 탈북자를 ‘먼저 온 미래’라고 부른다. 이들은 향후 북한이 개방되고 남북한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남한으로 대거 이주할 북한주민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통일 이전에 이미 남북한 체제를 모두 경험해본 집단이기 때문이다. 탈북자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에 의한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활발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탈북자에 대한 연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국내 탈북자의 정착제도와 사회지원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 사회정착에 대한 연구는 실제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과 보호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심리적 치료와 적응까지 아우르는데 <표 2>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국내 탈북자들은 임대아파트와 정착금, 생활보조금지급 등을 제공받고 재교육 기회를 갖게 된다. 초기 정착금 지원과 탈북청소년의 대학입학 특혜 등은 역차별로 향후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최창동, 2000). 이러한 경제적이거나 사회복지차원의 정착 지원뿐 아니라 탈북과정에서 겪게 되는 신체적 위협과 불안에 의한 트라우마(Trauma: 외상 후 스트레스)가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이

10) 트로포포비아는 유목공포감(遊牧恐怖感)으로 번역했다. 끊임없는 이동과 그에 따른 불안함과 신변에 대한 위협, 공포감 등을 뜻한다.

<표 2> 탈북자의 사회정책과 심리적 적응에 대한 선행 연구

사회적 적응	교육	대학특별전형 대안학교설립	윤여상(1994), 김성호(2001), 이우영(2003), 하성환(2004), 김영호(2005), 박세순(2011), 정정에 외(2013),
	주거	정착금, 생활보조금지급, 임대아파트 제공	
	취업	취업교육, 중소기업에 국가지원	
	문화	문화적응척도, 해외여행 자유	
	법·제도	탈북자의 법적 신분 고찰을 통한 지원방안제 시 연령·학력·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심리적 적응	트라우마 치료	상처치유, 탈북과정의 후유증 치유	전우택(2000), 김영만(2005), 엄태완(2009), 이화진(2011, 2014)
	시민 의식제고	자본주의 교육, 사회의식 고양, 문화·심리적 적응과 갈등, 통합 방안, 적응 실태, 정체성 재구성	이장호(1996), 전우택(2005), 조정아 외(2014)

출처: 오인혜(2007) 수정·보완.

에 따른 심리적 적응 및 치유 또한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박종철·김영
윤·이우영, 1996; 전우택, 2000).¹¹⁾ 탈북자의 사회부적응과 그 대안을 다루
는 연구는 한국 사회에 탈북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필
요성이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내 탈북자의 규모가 이미 3만 명에 다다름에 따라 사
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좀 더 세분화된 탈북자의 특성과 정체성을 밝히는
연구다. 즉,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민성길, 2001;

11) 트라우마는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주목을 받아왔으며 터널병(tunnel disease), 향
수(nostalgia), 군인의 심장(soldier's heart), 신경쇠약(nervous exhaustion), 다코스
타 증후군(Da Costa's syndrome), 포탄 충격증(shell shock)으로 불렸다. 특히 다
코스타증후군은 미국 남북전쟁 때 부상을 입은 병사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붙었다. 치료가 끝난 후에 특별한 신체적 이상이 없는 군인들에게서 심
장이 빨리 뛰고 진땀을 흘리는 사례가 목격되고 전쟁터에서 느낀 엄청난 공포
감이 이후에도 극도의 불안증상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소견에서 유래한 명칭이
다. 트라우마는 베트남전 후에 많은 관심을 모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알려졌다(Wright, 2003).

맹영임·길은배·최현보, 2003; 윤상석, 2013), 탈북 여성, 탈북 노인과 아동에 대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된다(김성경, 2013; 이성희, 2013).

특히 탈북 여성은 젠더적 시선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국제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탈북 여성은 조·중 접경지역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탈북자보다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즉, 탈북 이후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등을 당하고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무국적자가 되고 있다.¹²⁾ 한국 사회의 미디어에 등장한 탈북 여성도 상품화되거나 ‘이등시민’으로 재현되었다는 연구가 있다(이선민, 2014). 이러한 성별, 연령별 탈북자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의 기저에는 탈북자를 소수자이자 이주민으로 바라보는 담론이 자리하고 있다(정병호, 2014).

탈북자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헌법적 정체성’(박선영, 2013; 이덕연, 2013)과 ‘국가 정체성’(전우택·유시은·이연우, 2011)에 대한 연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상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에 포함되며 탈북자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¹³⁾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탈북자 본인도 자신을 북한국민 출신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남한과 북한은 분리된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탈북자 문제 자체가 원칙적으로 모순된 구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탈북자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서 보호하는 것과 북한 정권과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다원적으로 각각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이덕연, 2013). 즉, 탈북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북한정권과의 평화적 대

12) 중국은 자녀가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게 되어 있으며, 탈북 여성은 중국 내 불법체류자로서 자녀들은 모두 무국적자가 된다.

13)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교전단체로 본다. 같은 맥락에서 류우익(1996)은 한국 국민의 국토의식과 공간심리 또한 왜곡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한반도를 국토라고 생각하지만 남한만의 지도, 북한만의 지도가 더 익숙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마음의 지도가 작아지고 왜곡됨으로 공간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화 노력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 탈북자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학제 간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탈북자를 체제를 초월한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인본주의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좀 더 근본적인 존재론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탈북자는 분단 상황에서 적국으로 이주한 집단이며, 북한 주민으로서의 삶, 탈북 이후 불법체류자로서 중국에서의 시간들 그리고 낯선 한국에서의 삶, 온 과정이 유기적·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존재다.

본 연구에서는 존재론적 시각에서 이러한 탈북자의 토포필리아를 밝히고자 한다. 한국 사회공간에 소수자집단으로 등장한 탈북자들은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에 대한 애착과 추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삶을 개척하는 기반이 된다. “내가 나고 자란 근원 공간에 대한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잊어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기억은 내가 누구인지를 대변해 주는 것이기에 쉽게 잊을 수 없다.”¹⁴⁾ 즉, 탈북자의 토포필리아의 기저에 있는 고향의식과 한국 사회공간에 대한 새로운 장소인식은 탈북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론에서는 남한이라는 안전한 영구 정착지에 도착하고 새로운 국적을 받게 된 탈북자의 모순적 정체성과 이에 연계된 토포필리아를 밝히고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3. 탈북자의 토포필리아 구성 요소와 대응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토포필리아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속되는 환경과 장소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장소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연계의식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의 경우 각각의 국경을 이동하면서 사회적 정체성이 공민에서

14)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푸른길), 138~139쪽.

불법체류자(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리매김 되는 일종의 수동적 변화과정을 통해 극심한 정체성 혼란과 고향에 대한 의식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탈북자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에서 과거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북한국민이면서 대치중인 적국에 정착하게 된 한국인,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의 신변 안전이 보장된 한국행 이후에는 민족정체성(national identity)과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불일치에서 오는 소외감을 경험한다.¹⁵⁾ 즉, 남북한은 한민족이지만 휴전 중인 두 개의 국가로서 탈북자가 한국 사회를 ‘한민족’으로만 접근하기에는 문화, 사회 시스템이 현저히 다른 이주지이고 ‘다른 나라’ 출신으로 적응하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남한사회에서 갖는 부정적·위협적 의미가 강해 정체성의 혼돈을 지속적으로 겪게 된다. 탈북자의 경우 스스로 동일한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고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도 한민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적응은 시간과 함께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사회에서의 탈북자라는 낙인과 차별, 타자화는 탈북자에게 고향을 부정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한다. 동시에 탈북자는 남한 사회공간에 대한 토포포비아를 갖게 되어 고향에 대한 의식적 단절과 새로운 삶의

15) 민족 정체성은 어떠한 특정 민족집단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이자 동시에 민족집단이 갖는 독특함과 차별성을 말한다. 민족 정체성은 다른 사람에 의해 규정받기도 하는데 사실상 남·북한은 스스로 한민족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타민족(세계)에 의해서도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 국가 정체성은 국적 취득이나 국민의 의무와 권리 등의 법률적 의미가 강하며 인위적인 정치 체제에 의해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불일치는 비단 탈북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주와 이민이 빈번해지고 다문화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한 국가 안에 여러 민족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이 자연적이고 공간 구속적이라면, 국민은 인위적인 정치 체제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3). 탈북자의 경우 한반도라는 공간과 한민족의 역사라는 민족적 정체성은 남한 사람의 그것과 일치하지만 체제와 법과 제도가 다른 북한이라는 국가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남한의 국가제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적응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갖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에 대해서는 객관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환상적 애착을 갖게 된다. 나아가 자신의 집과 고향을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하기도 하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근원적 애착을 갖는다(조규철, 2004; Relph, 1976; Tuan, 1977). 탈북자의 경우 남한사회공간에서 자유롭게 고향에 대한 애착과 방문의사를 드러내기 어렵다. 이러한 토포필리아적 모순은 분단의 또 하나의 치유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 내 탈북자의 북한과 중국, 한국 사회공간에 대한 토포필리아를 심층인터뷰와 탈북자 수기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토포필리아는 탈북자의 시선으로 인식한 각 공간이 갖는 장소로서의 정체성과 경험이 복합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1) 북한사회공간에 대한 토포필리아: 그리움과 증오의 모순적 공간

탈북자는 고향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 그리고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극단적 상황에 대한 아픔과 분노라는 중첩적·모순적 토포필리아를 형성하고 있다. 고향은 인간에게 친밀한 장소이며, 인간 집단은 그들 자신의 고향을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Tuan, 1977). 또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공통적인 집단의 기억이나 사건을 포함하기 때문에 탈북자의 고향의식은 자연히 북한을 들여다보는 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데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탈북자의 토포필리아의 기저에는 고향으로서의 북한이 켜켜이 녹아 있다. 어린 시절을 보낸 곳, 아름다웠던 경관, 동시에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처참함 등의 장소애가 탈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탈북자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은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나 인식이 아닌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에 대한 토포필리아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의 공존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중국에 거

주할 때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인 문제로 북한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수록 그 그리움은 더욱 커간다고 할 수 있다. 탈북 시인인 이가연 씨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탈북자의 고향에 대한 깊은 사랑과 비애를 살펴볼 수 있다.

어릴 적 나의 소원은 쌀밥 한 그릇 먹어보는 것이었다. 저녁은 오늘이 저물고 내일이 또 있다는 자연의 이치이지만, 그것이 무엇보다 싫었다. 내일이 또 있다는 것은 오늘 걱정한 만큼 내일도 쌀 걱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린마음을 일찍 철들게 해준 게 저녁이었다. 그래서 저녁이면 더 고향이 생각난다. 밥 한 그릇이 소원이었던 고향생각에 목이 메이는 간절함을 밥이 그리운 저녁, 고향이 그리운 저녁이라는 뜻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탈북 시인 이가연 씨(《Daily NK》, 2014.9.17 기사에서 발췌)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을 송금을 통해 표현하기도 하지만, 북한 수뇌부에 떼이는 돈을 보며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조금 돈이 생기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느라 목돈을 못 모은다. 탈북자들이 1년에 북한에 보내는 송금이 1000만 달러라고 하더라. 알음알음 브로커를 통해서 공연히 벌어지는 일이다. 탈북자들 자신도 정착하지 못한 처지에 북한 식구들 생각하면 죄책감 들고 불쌍하니까……

로스쿨 재학생 탈북자 강릉 씨(《한겨레》, 2014.9.4. 기사에서 발췌)

북한의 동생에게 돈을 보내봤는데 50만 원 보내면 25만 원 겨우 받고 있다. 저주받은 땅이다.

40대 여(인터뷰)

북한 무용수 출신의 김○○ 양은 인터뷰를 통해 “여기 탈북자들은 북한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만 거의 진실이 아닐 것이다”라며 탈북자의 고향에 대한 사랑 표현이 암묵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는 이○○군도 “북한에 부모형제가 있으니 당연히 그리워한다. (탈북자들) 100이면 100 다 그럴 것이다.”라며 고향에 대한 애착을 나타냈다.

탈북자동지회라는 NGO 관계자인 40대 남성과 북한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국장의 인터뷰를 주목해보자.

북한 사람이 고향인 북한을 그리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독재정권인 김정일 정권과 그 수뇌부를 제외하고 북한 지역을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40대 남(탈북자동지회 NGO 관계자, 인터뷰)

김정일과 그 측근들의 북한과 나의 고향, 주민들의 북한을 철저히 갈라 봐야 한다. 월남 1세대(피난민)들이 남한의 이념만을 찾아왔다고 하면, 탈북자의 경우 철저한 분단으로 인해, 삶을 아우르는 모든 사회적 배경까지 다르기 때문에 상실의 아픔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그리움은 체제 대립 이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40대 남(자유북한방송 국장, 인터뷰)

이들은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을 분리해서 인식하라고 강조했다.¹⁶⁾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치열한 남

16) 오인혜(2007)는 북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밝혔다. 대학교와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유자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5점 척도에서 평균 4.05로 일반적인 평균 3.48보다 높았다.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을 분리해 인식하는 정도는 중학교 졸업, 0.5, 고등학교 졸업, 0.78, 대학교 이상은 1.35로 학력이 높을수록 분리해서 인식하는 정도가 컸다.

남갈등과 ‘중북논란’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향으로서 북한에 대한 애착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인 동시에 애절한 향수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누가 자기 고향을 싫다고 말하겠는가. 낯선 남한 땅에 고향을 등지고 올 정도면 그 상황(참혹함)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지 않느냐…… 북한 고향에 형제와 가족들을 두고 있는 우리 탈북자만큼 북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40대 교회 전도사(인터뷰)

누구나 자기가 나서 자라 텃줄을 묻은 고향을 사랑한다. 나도 여기 남한 사람들이 아오지라면 지옥을 상상케 하는 고향 아오지를 사랑한다.

○○○(자유북한방송 발췌)

탈북자들의 북한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은 오히려 남한사회에서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목표를 찾을 수 있는 답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통일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부모님을 뒤흔히 만나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나는 무슨 일이든지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다……

박○○(북한이탈주민회 발췌)

북한에 대한 토포필리아의 한 축인 토포포비아는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공포정치, 절망적 상황 등에서 접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꿈이 없었다. 그냥 사는 것이었다. 학교가고 군대 가고 일하고……

20대 남(인터뷰)

사람 죽어나가는 것을 봐도 아무 마음이 없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 인간의 본능이 없었다. 차라리 ‘빨리 죽지’하는 생각도 했다. 한이 맺힌다.

32세 여(인터뷰)

평양에서 숙청당했을 때가 제일 싫었다. 북한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너무 아픈 기억뿐이다…… 북한에 대해 떠올리고 싶지 않다.

36세 여(인터뷰)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갖는 북한에 대한 토포필리아는 무의식적이고 실존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고향의식으로 치환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남한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거나, 반드시 차별과 배제에 의한 반작용에서 파생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존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태어나고 자라온 장소가 갖는 절대적인 영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인혜(2007)는 103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고향의식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분석을 실시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고향의식이 강했으며 외부세계에 대한 가치판단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독재체제에서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층이 장년, 노년층 탈북자보다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또한 탈북자의 고향에 대한 지향은 남한에서의 정착 기간이나 체감 생활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없었는데 이것은 북한에 대한 그리움이 남한에서 겪는 부적응에서 오는 결과라는 당위적 논리에서 벗어나 남한 사회가 탈북자의 고향지향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즉, 이러한 북한에 대한 토포필리아는 건강하게 발현될 수 있어야 하며, 결국은 평화와 통일로 가는 과정에 경제적·정서적·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무형의 가치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물론 재입북해서 체재를 선전하는 일에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하겠지만 북한에 대한 그리움,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지원들은 억압되지 말아야 하며 통일 준비 차원에서 포용되

어야할 것이다.

2) 중국사회공간에 대한 트로포필리아: 희망의 공간을 만나는 시스템적 공포 공간

중국을 탈북자를 경제적 이유로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북송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별히 외교공관으로 진입해 국제적 이슈가 되는 탈북자의 경우에 한해 남한이나 미국, 영국 등의 정부와 교섭을 통해 각각 이송하는 경우가 있다. 북한을 넘어 국경을 넘은 순간 탈북자는 불법체류자로서 중국 사회공간 제도에서 배제된 신분이 되며, 신변의 위협과 북송 위협, 인신매매와 임금착취 등과 같은 인권유린을 경험하게 된다.

중국 내 탈북자는 중국의 법과 제도 안에 보호받지 못하고 시스템적으로 폭력공간(Young, 1990a) 안에 놓이게 된다. 시스템적 폭력공간이란 사회적 약자가 법과 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시스템적 폭력’(Young, 1990a)에 노출되는 공간을 말한다. 주로 가정과 가족 내에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 고령자에 대한 폭력, 인종차별적 폭력, 동성애자 혐오 폭력 등이 이루어진다. 특히 시스템적 폭력은 폭력을 통해 권력과 힘이 없는 사회적 집단을 배제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에서 탈북자는 외국인 무국적자로서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시스템적 폭력공간이 되고 그 가운데 여성과 아동은 더욱 심각한 학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에게 조·중 접경지역은 자유의 국가로 갈 수 있는 터널로서 일종의 희망의 공간(Foucault, 1986)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은 굶주림을 피해 탈북해서 처음 만나는 곳이며, 열악한 인권상황 속에서도 한국 및 국제NGO 등을 통해 처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곳이다. 탈북자 출신 박지현 씨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갔던 기억을 감추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크리스찬 NGO와 연계되면서 영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던 것은 공포공간이

자 희망의 공간으로서의 중국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¹⁷⁾ 즉, 중국은 생존을 위협하는 가운데 간접적으로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남한에 대한 정보를 접함으로 남한행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김화순, 2010).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가운데는 중국에서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펼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삶의 경험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탈북자가 지닌 중국에 대한 토포필리아는 유목적 존재로서의 트로포필리아라 할 수 있다. 탈북자는 중국에서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다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숨고 배제되면서 트로포포비아를 형성해간다.

북한을 떠나 3국에 체류하는 동안 바깥구경도 못하고 숨을 죽이고 숨어 살며 발자국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곤 했다. 탈북자 단속으로 급할 때는 아이와 옷장 속에 숨어야 했던 적도 있었고 한밤중에 이사를 가야할 때도 있었다. 고달픈 타국에서의 도피생활이었다.

천○○(탈북자동지회 발췌)

저와 저 동생은 처녀 시절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한창 아빠, 엄마 사랑을 받을 나이에 중국에서 서로 다른 집에 팔려가 동생은 19살에 저는 22살에 아이엄마가 되어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탈북자 동지회(탈북수기 중 발췌)

이와 다른 시각에서는 탈북 이후 처음 중국의 발전된 모습에 문화충

17) 《Telegraph》, 2015년 10월 11일자 기사 참조.

격을 받고 점차 한국에 대한 지향을 심화해가며 트로포필리아를 형성해 간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일성 생일이나 먹을 수 있었던 사탕이 많았다. 중국에 살면서, 사람들이 한국은 여기(중국)보다 훨씬 잘살고, 차도 많고, 모두 다 잘산다는 말을 들었다.

23세 남(무직, 인터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에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간접 경험은 한국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트로포필리아는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사회적·심리적 연계를 시도하면서 한국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인 손님이 갑자기 늘어가면서 내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찾아왔다. 나는 입국 전 잠시나마 중국에 체류했던 경험을 살려 중국인 손님이 올 때면 먼저 다가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느낀 뿌듯함을 잊을 수 없다. ‘내가 이곳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박○○(탈북자동지회 발취)

중국말은 할 수는 있는데 쓸 줄은 모른다…… 기회가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28세 남(개인사업자, 인터뷰)

북한에서 온 것을 밝히기 싫을 때가 있어서 가끔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말한다.

24세 여(무용수, 인터뷰)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가 1998년 이후 급증하다가 201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거나 김정은 체제 이후 탈북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된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경험하는 무국적자로서의 인권유린은 조직적으로 확대되면서 더 심각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중국에 대한 트로포포비아는 지속적으로 존재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탈북난민인정을 위한 집회나 탈북자 복송반대와 같은 사회운동에 동참하는 행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3) 한국 사회공간에 대한 토포필리아: 개척과 적응의 신대륙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자는 <표 3>과 같이 2만 9137명(2016년 3월 현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냉전의 ‘영웅’, 때론 ‘희생자’, 사회적 차원에서는 빈곤한 적국 출신의 ‘망명자’ 또는 ‘난민’으로서 동정과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정병호, 2014).

탈북자가 한국 사회공간에 대해 갖는 장소로서의 애착은 일종의 유대감으로 나타나며, 이는 인간의 존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Pred, 1983). 물론 사회적 계층에 따라 특정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르고 그것은 다시 삶의 장소에 대한 토포필리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의 고층 건물에서 일하는 중상류층과 ‘쪽문’으로 드나드는 하층계급의 ‘도시’는 같은 장소지만 그에 대한 토포필리아는 다른 것이다(Tuan, 1976). 탈북자 역시 한국 사회공간에서는 가난한 이주자 집단으로서 소외계층에 편입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느끼는 초기 토포필리아는 낯설과 소외 그리고 두려움으로 점철된다고 할 수 있다. <표 4>에는 탈북자의 한국 정착 초기에 느끼는 장소 공포감이 잘 나타나있다.

이러한 탈북자의 남한사회공간에 대한 부정적 토포필리아는 향후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사회가 갖는 한국 내 탈북자에 대한 시선은 본 논의에서는 벗어나지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표 3> 탈북자의 한국 입국현황(2016년 3월 말 입국자 기준)

구분	남(명)	여(명)	합계	여성 비율
~1998	831	116	947	12%
~2001	565	478	1,043	46%
2002	510	632	1,142	55%
2003	474	811	1,285	63%
2004	626	1,272	1,898	67%
2005	424	960	1,384	69%
2006	515	1,513	2,028	75%
2007	573	1,981	2,554	78%
2008	608	2,195	2,803	78%
2009	662	2,252	2,914	77%
2010	591	1,811	2,402	75%
2011	795	1,911	2,706	70%
2012	404	1,098	1,502	72%
2013	369	1,145	1,514	76%
2014	305	1,092	1,397	78%
2015	251	1,025	1,276	80%
2016.3.(잠정)	77	265	342	77%
합 계	8,580	20,557	29,137	71%

*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한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갖는 탈북자에 대한 인식은 곧 다시 탈북자 자신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윤희·김수연(2013)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란 비난의 대상이자 경계의 대상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며, 동정과 구호, 포용과 인정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34.6%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탈북자의 정체성은 동일민족으로 보는 시각(32.1%), 탈북자 그 자체로 보는 시각(30.7%), 그리고 간첩, 범죄자 등 부정적으로 본 시각(31.2%)이 공존하고 있다.¹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표 4> 한국 사회공간에 대한 탈북자의 정착 초기 토포포비아

그렇게 해서 나는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북한에 남겨두고 한국으로 귀순한 31살의 젊은이로 동토의 북모지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도 어언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처음으로 사회에 나라 자유라는 이름의 풍요함을 느끼던 어느 날 먼저 귀순한 선배의 훈시가 떠올랐다. 남한에 정착하려면 6가지 고개를 넘어야한다는 말이었다.

첫째, 사기 한번 당해야 한다.
 둘째, 회사 한번 때려치워야 한다.
 셋째, 개인 사업하다 부도 한번 맞아봐야 한다.
 넷째, 사고 한번 당해봐야 한다.
 다섯째, 첫 애인과 이별해야 한다.
 여섯째, 알코올중독에 빠져야 한다.

출처: 이장호(1996)

민족으로서는 포용할 수 있지만 시민으로서는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 다손애리·이내영, 2012).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무관심 혹은 경계, 차가운 시선은 탈북자의 토포 필리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자살률은 0.09%로 일반국민의 세 배에 해당된다.¹⁹⁾ 사선을 넘어 자유의 세계에 정착했지만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은 삶의 객관적인 환경뿐 아니라 장소가 갖는 의미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중국에서는 불법체류자로서 ‘생존’을 위해

18) 최윤형·김수연(2013)은 미디어에서 탈북자를 다루는 시각이 한국 사회의 탈북자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방향 제시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19)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전체 탈북자 24,010명 중 22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Daily NK》, 2013년 10월 12일자).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100여 명 가운데 이미 3명이 자살한 사건은 이것이 비단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의 탈북자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싸워야 했다면 한국 사회공간에서는 민족은 같지만 적국에서 온 이주자로서 ‘적응’을 위해 싸워야 한다. 따라서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한국 사회공간에 대한 애착의 증가와 제2의 고향으로서 뿌리를 내려가는 것은 탈북자의 정착에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²⁰⁾

먼저 한국 사회공간에 대한 탈북자의 토포포비아를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0년쯤 지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가족과 주변사람들 앞에 설까? 이런 생각을 하노라면 때로는 두렵기도 하다…… 북한에서 왔다면 덮어놓고 인정을 안 해주는 사회……

이○○(북한이탈주민회 발췌)

처음에 나는 무슨 큰 죄를 지은 듯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라고만 했다…… “탈북자라구요? 탈북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른 곳에서 알아보시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이곳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요.”…… 심지어는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고 아예 이력서를 더 이상 보지도 않고 내 눈앞에서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내 결심과 용기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박○○(탈북자동지회 발췌)

남한 사람은 잘해줘도 동정심에 가깝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지만 내가 느끼는 건 여기서 최하위다.

32세 여(인터뷰)

남한 땅에 정이 떨어졌다. 우리 같은 사람은 점점 살기 어렵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20) 한국 사회공간을 제2의 고향으로 애착을 형성해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28세 남(인터뷰)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자 친구와 헤어진 쓰라린 경험이 있다. 북한이 20~30년 뒤쳐진 곳이기 때문에 한수 깔고 보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탈북자들이 받는 상대적인 혜택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남한이 매우 좋지만 나는 이 사회에서 최하층이라고 생각한다.

35세 남(인터뷰)

이와 같이 탈북자가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소외감, 자괴감 및 정체성의 혼란을 확인할 수 있다.

탈북자의 한국 사회공간에 대한 토포필리아는 장소 공포감과 애착이 공존하며 거주기간과 개인의 경험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Pretty, Chipuer and Amston, 2003). 한국 사회에서 취업을 하거나 재교육을 받으며 소속감과 애착이 증가하는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내가 원하던 일을 하게 된 것이 보람되고 행복하다. 내가 비록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면 내가 그들로부터 남한을 배워 나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 서투르고 어색한 점도 많았지만 아무런 내색도 없이 한국 선생님과 똑같이 대해주고 스스럼없이 오랜 동안 함께 생활한 스승과 제자사이처럼 다정하게 대해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친○○(탈북자동지회 발췌)

나는 30년이란 세상을 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 나라 건설을 위해 땀 흘린 것도 없고 벼돌한 장 쌓은 일도 없다 단지 동포라는 사실하나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나에게 국적을 주었다…… 이 좋은 삶의 터전에서 깨끗한 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다.

강○○(탈북자동지회 발췌)

나는 내가 지금 남한사회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꿈만 같다.

김○○(탈북자동지회 발체)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내 인생은 새롭게 다시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뚜렷한 것은 북한에 있을 때는 ‘남조선’이라 부르며 적대시하던 이 땅을 이제는 당당한 ‘우리나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김○○(자유북한방송 발체)

한국 사회는 탈북자들이 고향에 갈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탈북자들을 품는 따뜻한 ‘2차적 고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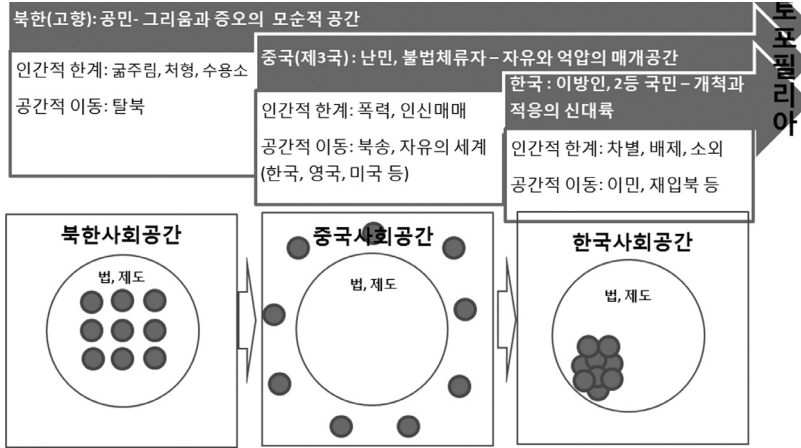
탈북자들의 부적응은 자살이나 탈남 현상으로 재현된다.²²⁾ 제3국에서 난민 자격으로 직접 영국이나 미국 등으로 입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사회에서 인권 유린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이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 위신을 위해서도 탈북자의 사회적응은 한국 사회공간의 중요 과제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영구정착지가 된 한국 사회는 초기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지만 점차 애착이 증가하면서 제2의 고향이 되어가며 현존재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탈북자의 한국 사회 부적응은 지속적인 토포포비아를 형성하며 범죄 증가와 자살 선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대안적 선택으로 이민이나 재입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1) 고향이라는 장소는 도시화 과정에서 변화되거나 때론 파괴되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북한과 같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새로운 거주 공간을 ‘선택 고향’, ‘2차적 고향’으로 부르며 타향을 고향화해 나갈 수 있다(전광식, 199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은숙(2004)은 재미한인의 고향의식에 대한 연구에서 미국이 고향으로 전환되는 요인으로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사회경제도의 장점, 소속감을 꼽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탈북자가 한국 사회공간을 제2의 고향화하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22)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입북이 공식 확인된 탈북자는 16명이다(《세계일보》, 2015.9.29).

<그림 1> 탈북자의 공간이동과 사회적 자리매김



4. 결론

본 연구는 탈북자의 공간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탈북자의 정체성과 사회적 자리매김을 토포필리아의 개념으로 해석해보았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자에게 북한은 그리움과 증오가 중첩된 모순된 공간이며, 중국으로 대표되는 제3국은 자유와 억압의 매개 공간, 끝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공간은 개혁과 적응을 위한 신대륙이라 할 수 있다.

탈북자의 토포필리아는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 경험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되어간다. 사회적 약자로서 경험해야 하는 공포감(phobia)과 삶의 장소로서의 애착은 북한에 대해서는 토포포비아와 고향의식으로, 중국에서는 트로포포비아와 트로포필리아로, 한국에서는 초기 토포포비아와 제2의 고향화로 해석해볼 수 있다. 결국 탈북자는 북한과 중국(제3국), 한국이라는 사회공간이 주는 자극을 선회하고 변화시켜나가는 존재라 할 수 있다. 탈북자가 경험하는 이러한 장소들은

새롭게 인식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인본주의적 장소’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탈북자의 토포필리아가 갖는 사회적 의미란 절대적인 법과 제도적 영향에도 탈북자가 삶의 공간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장소에 대한 토포필리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북한은 생명을 건 탈북으로, 중국은 자유 세계로의 도약으로, 한국은 탈북자의 영구 정착지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 하는 장소지만 이민이나 재입북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의 여지도 열어 놓는 현재진행형인 사회공간으로서 대응할 수 있다.

탈북자가 북한에서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물리적 환경, 중국에 있을 때 법적 보호에서 철저히 배제된 제도적 환경, 그리고 남한에서 ‘환영받고 있는가, 차별·배제되고 있는가’라는 심리적 환경은 탈북자의 토포필리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탈북자가 장소를 어떻게 바라보며 도전해 나가느냐에 따라 새롭게 진취적인 토포필리아를 형성할 수 있는 상호관계를 갖는다. 이것은 다시 사회적응에 기초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 사회는 이들의 거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적 혜택이나 고용 지원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커뮤니티 안에 ‘의미 있는 만남의 장소’를 만들거나 국토 여행 등과 같은 ‘장소와 친해지기’ 활동을 마련함으로써 장소 애착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는 통일 이후 통일한국이 거쳐야 할 이질감 및 사회 갈등을 간접적으로나마 미리 경험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통일 한국의 비전은 결국 사람의 통일이 되어야 하고 사람의 통일은 각각의 장소가 갖는 다양한 의미와 그에 따른 경험을 서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다. 한국 사회공간에 등장한 ‘탈북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계되어 있는 현존재이며 이들의 전인적인 토포필리아를 이해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좀 더 성숙하게 이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1차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7일

1차 수정완료일: 2016년 1월 20일

2차 심사완료일: 2016년 2월 2일

게재확정일: 2016년 3월 30일

최종원고접수일: 2016년 4월 6일

❖ Abstract

North Korean Refugee's Topophilia and Social Meaning

In-Hye Oh

Everybody builds their identity through affection towards place unconsciously because humanity without any exception belongs to place with birth. North Korean Refugees is one social group which has gone through so many different identity crisis through dramatic changes on their living place. North Korean Refugees has two contradictory feelings of longing and hatred toward this place, North Korea. The Refugees sees China as a way of hope towards freedom, but also sees her as panic place because of their illegal status. At last, North Korean Refugees regard South Korea as a new continent where they need to explore and adapt just as immigrants need to change their concepts from topophobia to topophilia.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South Korea will be very important group after two Korea's unification because they have experienced both Korea as a place of living. Eventually unified Korea's vision is human unification through understanding difference of place and according to experience.

Keywords: North Korean Refugees, Topophilia, Topophobia, Trophephilia, Trophephobia

참고문헌

- 곽노완. 2008. 『글로벌폴리스와 희망의 시공간: ‘글로벌 시티’ 담론과 하비의 ‘희망의 공간’에 대한 비판과 변형』. 《사회이론》, 2008 봄/여름, 61~86쪽.
- 김영만. 2005.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자(새터민)들의 적응실태: 무엇이 그들의 소외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학술정보.
- 김성경. 2013. 『북한이탈주민의 월경과 북·중 경계지역: 감각되는 장소와 북한이탈여성의 젠더화된 장소감각』. 《한국 사회학》, 47(1), 221~253쪽.
- 김성호. 200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대안보고서: 생산적 적응과 정착』. 《국감정책자료집 1》,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김영호. 2005. 『서울시 거주 새터민 정착실태 분석과 정착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용창. 1997. 『생활양식과 도시문화: 문화정치적 해석』. 《국토》, 189, 22~29쪽.
- 김희순. 2010. 『탈북여성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포럼, 29~57쪽.
- 류우익. 1996. 『통일국토의 미래상: 공간구조 개편 구상』. 《대한지리학회지》, 31(2), 44~59쪽.
- 맹영임·길은배·최현보. 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 1~262쪽.
- 민성길. 2001. 『통일과 남북 청소년』.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선영. 2013.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범위 재설정』.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34, 403~428쪽.
- 박승규. 2013. 『정체성, 인간이 공간에 새긴 흔적을 설명하다』.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저, 제5장), 푸른길, 120~151쪽.
- 박종철·김영윤·이우영. 199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박채순. 2011.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유입과 적응실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5(2), 63~88쪽.
- 손애리·이내영. 2012.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국가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19(3), 5~34쪽.
- 엄태완. 200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적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61(2), 189~213쪽.
- 오인혜. 2007. 『탈북자의 고향의식과 그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상석. 2013. 『탈북청소년 사회지원을 통한 사회통합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워크숍자료집』, 13-S36, 63~84쪽.

- 윤여상. 1994. 『귀순 북한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귀순자 수기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덕연. 2013.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지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36, 27~63쪽.
- 이선민. 2014. 『탈북 여성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텔레비전 토크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 A)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 《미디어·젠더 & 문화》, 29(2), 75~115쪽.
- 이성희. 2013. 『탈북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남한정착과정의 타자정체성 연구』.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23(2), 77~96쪽.
- 이영민. 2013. 『이주: 장소와 문화의 재구성』.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저, 제7장), 푸른길, 195~226쪽.
- 이우영. 2003.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통일연구원.
- 이은숙. 2004. 『장소에 대한 애착의 개념구조』. 《사회과학연구》, 20, 1-16쪽.
- _____. 2004. 『해방 전 재미한인 이민문학에 나타난 고향의식과 그 지리적 의미』. 《문화역사지리》, 16(1), 183~196쪽.
- 이장호. 1996. 『북한 출신 남한 이주자(탈북자) 문제의 사회통합적 대응』. 크리스찬아카데미 남북관계 대화모임 발제문.
- 이화진. 2011. 『탈북여성의 이주경험을 통한 정체성 변화과정-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이성관계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1(3), 173~211쪽.
- _____. 2014. 『이주공간의 변화에 따른 탈북여성의 모성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한국여성학》, 30(3), 161~200쪽.
- 전광식. 1998. 『고향에 대한 철학적 반성: 근·현대 서양정신사에서의 고향논의를 중심으로』.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67, 253~286쪽.
- 전우택. 2000.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엄』, 67~92쪽.
- _____. 2005. 『북한주민들의 사회의식 및 김일성 부자에 대한 태도 조사: 남한 내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9(1), 43~72쪽.
- 전우택·유시은·이연우. 2011.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통일정책연구》, 20(2), 1~36쪽.
- 정병호. 2014. 『냉전 정치와 북한 이주민의 침투성 초국가 전략』.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17(1), 49~100쪽.
- 정정애·손영철·이정화. 2013.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2(2), 215~248쪽.
- 조규철. 2004. 『마르틴 하이데거와 존재사유』. 울산대학교출판부.
- 조정아. 2014. 『탈북청소년의 경계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 최윤형·김수연. 2013. 『대한민국은 우릴 받아줬지만, 한국인들은 탈북자를 받아준

- 적이 없어요’: 맺글에 나타난 남한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공공 PR의 과제』. 《한국광고홍보학보》, 15(3), 188~220쪽.
- 최창동. 200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역차별성: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
- 하성환. 2004.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3.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 Anderson, J. and Erskine, K. 2014. “Trophophilia: A Study of People, Place and Lifestyle Travel.” *Mobilities*, 9(1), pp. 130~145.
- Billig, M. 2006. “Is My Home My Castle? Place Attachment, Risk Perception, and Religious Faith.” *Environment and Behavior*, 38(2), pp. 248~265.
- Brown, B. B. Perkins, D. and G. Brown. 2003. “Place Attachment in a Revitalizing Neighborhood: Individual and Block Levels of Analysi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 pp. 259~271.
- Cohen, A.P. 1982. *Belonging: Identity and Social Organisation in British Rural Culture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Cresswell, T. 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John Wiley & Dond (심승희 역. 2012.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장소』, 시그마프레스).
- Foucault, M. 1986. “Of Other Spaces.” *Diacritics*, 16, pp. 22~27.
- Hay, B. 1998. “Sense of Place in Developmental Contex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8, pp. 5~29.
- Hummon, D. M. 1992. “Community Attachment: Locale Sentiment and Sense of Place.” I. & Low, S(eds.),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12: Place Attachment, Plenum Press, New York, pp. 253~278.
- Korpela, K. M. and Ylen, M. 2007, “Perceived Health is Associated with Natural Favourite Places in the Vicinity.” *Health & Place*, 13(1), pp. 138~151.
- Manzo, L.C. and Perkins, D. D. 2006. “Finding Common Ground: The Importance of Place Attachment to Community Participation and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0(4), pp. 335~350.
- Marcus, C.C. and Barnes, M. 1999. *Healing Gardens: Therapeutic Benefits and Design Recommendations*.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Cambridge: Polity Press
- Matz, D.C. and Wood, W. 2005. Cognitive Dissonance in Groups: The Consequences of Disagre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pp. 22~37.
- Muico, N. 2005.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 Woman in China*. Anti-Slavery International.
- Pred. A. 1983. “Structuration and Place.” *Journal of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13, pp.

- 157~186.
- Pretty, C. Chipuer, H. and P. Amston. 2003. "Sense of Place Amongst Adolescents and Adults in two Rural Australian Towns; The Discrimination Features of Place Attachment, Sense of Community and Place Dependence in Relation to Place Ident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 pp. 273~287.
- Rubinstein, R. L. and Parmelee, P. A. 1992. "Attachment to Place and Representation of the Life Course by the Elderly." *Place Attachment*. ed. Altman, I. & Low, S. M. pp. 139~163.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imited(김덕현 외 옮김. 2005.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 _____. 1985. "Geographical Experiences and Being-in-the-world: The Phenomenological Origin of Geography." in D. Seamon & R. Mugerauer(eds.), *Dwelling, Place and Environment: Towards a Phenomenology of Person and Worl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5~31.
- Tartaglia, S. 2006. "A Preliminary Study for a New Model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1), pp. 25~36.
- Tuan, Yi-Fu. 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Prentice Hall Inc.(이옥진 옮김. 2011. 『토포필리아-환경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연구소 로컬리티 번역총서 L6).
- Tuan, Yi-Fu. 1976. "Humannistic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6, pp. 206~276.
-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구동희·심승희 옮김. 2005. 『공간과 장소』. 대운).
- Ulrich, R. S. 1992. "Effects of Interior Design on Wellness: Theory and Recent Scientific Research." *Journal of Healthcare Design*, 3, pp. 97~109.
- Weil, S. 1988. *The Need for Roots*. Beacon: Boston.
- Werlen, B. 1987. *Sozialgeographie*. Paul Haupt Berne(안영진 옮김. 2003. 『사회공간론』. 한울아카데미).
- Wright, N. 2003. *New Guide to Crisis & Trauma Counseling*. Regal Books(금병달·구혜선 옮김. 2010. 『트라우마 상담법』. 두란노).
- Young, I. M. 1990a.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ed. Nicholson. L., *Feminism/Postmodernism*. London: Routledge.